中國語文學 第78輯(2018. 8) 31-56쪽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 비교 연구

박성원*·이석형**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유사점: 託傳의 측면에서 바라본 두 작품
Ⅲ.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차이점
1. 형식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
2. 내용 및 주제의식에서 나타나는 차이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自敍傳(혹은 自傳)은 여타 문학 장르와 비교하였을 때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독특성 가운데서도 문학 작품의 주체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주체를 서술주체로서의 '작가', 글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주체로서의 '화자', 그리고 글에서 행위 주체로서의 '주인공'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1] 自敍傳에서는 이러한 세 주체가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自傳은 작가에게 있어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서술 상의 특성을 지닌다.

*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북아학과 석사과정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교수

1) 윤진, 〈진실의 허구 혹은 허구의 진실-자서전 글쓰기의 문제들〉, ≪프랑스어문교육≫ 제7집, 1999, 264쪽.

www.kci.go.kr

문학 연구자에게도 역시 自傳은 큰 의의를 갖는다. 중국의 고전 散文에서 自傳이란 다른 散文 文體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작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르이다. 중국 고전 散文은 應用的·對外的 성격이 강한 편이라 늘 타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글을 짓기 때문에 환경 속에 놓인 작가 자신의 입장과 소견, 그리고 사상적 견해 및 주장을 위주로 한다.[2] 이와 같은 목적성을 가진 글쓰기가 주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散文의 특징이라 일컬어지는 身邊雜記的 특성은 적어도 중국 고전 散文에서 잘 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문학에서 自傳은 그 작가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

중국 문학 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의 범주를 확장해보아도 중국의 自傳은 여전히 특수성을 지닌 문학 장르이다. 중국의 自傳에는 기존의 '작가—화자—주인공의 동일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託傳'은 이러한 독특한 自傳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託傳에서 작가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서술할 때 서술 대상이 자신과 별개 인물인 것처럼 형상화한다. 託傳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독자는 글에 등장하는 대상이 곧 작가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 수 있다. 하지만 託傳은 형식적으로만 보았을 때 작가가 스스로에 대해 적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3]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託傳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작품이 제공하는 작가의 정보만이 아니다. 託傳 연구에

2) 이주해, 〈중국 고전문학에서 자전적 글쓰기의 특징-類型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제44권, 2013, 79쪽.

3) 自傳 개념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프랑스의 학자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의 이야기를 참고해볼만 하다. "필립 르죈(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에 따르면 자서전이란,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人性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이다. 사실 중국의 自傳은 본문에서 언급한 託傳이 아니더라도 서구에서 정의한 자서전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중국 自傳의 시초인 〈太史公自序〉의 경우, "≪史記≫ 130권의 편명과 각각에 대한 내용 설명, 각권을 두게 된 이유 따위의 기술"(川合康三(심경호 역), ≪中國의 自傳文學≫, 소명출판, 2002, 30쪽.)이 주된 분량을 차지하며 司馬遷 스스로에 대한 서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www.kci.go.kr

서는 '왜 작가가 스스로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託傳의 작가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몸담고 있었던 사회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 산문 문학 전체로 보았을 託傳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대상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自傳은 유형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국 고전 문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託傳은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 두 편의 글이다. 〈五柳先生傳〉은 陶淵明이 隱逸之士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해낸 작품으로, 이후 중국에서 등장하는 託傳의 典範이 되었다. 그리고 〈六一居士傳〉은 歐陽脩가 64세 되던 해에 지은 글이며, 해당 작품은 정치에서 완전히 떠난 뒤 晩年을 향유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후술되는 내용에서는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이뤄질 것이다.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왜 본고에서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을 채택하고 각 작품을 비교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으로서의 託傳을 선정하는 작업에서 주목한 것은 託傳이 특정 형식에 얽매이는 글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즉, 託傳은 비교적 律格이나 押韻으로부터 자유로운 散文의 하위 장르이므로, 창작에 있어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본고에서는 詩人으로서의 이미지가 뚜렷한 陶淵明과 宋代 散文 문장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歐陽脩를 대비시킴으로써 託傳의 여러 양상을 조망하고자 했다. 託傳은 傳記體 散文의 상투적 특징을 답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격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魏晉時期와 北宋代라는, 다소 시간적 차이를 두고 활동했던 두 작가를 비교하는 까닭은 託傳 창작에 나타나는 작가 의식이 通時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각각의 시대는 '극도의 사회적 불안'과 '국가의 안정 및 문화적 중흥'이라는 상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판이하게 다

www.kci.go.kr

른 시대를 살았던 陶淵明과 歐陽脩는 특정한 이유로 자신을 숨긴 채 자신에 대한 글을 적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시간적 차이·사회 분위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현된 작가 의식이 託傳을 통해 발현된다고 보았다.

託傳이라는 키워드로 묶지 않아도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은 지명도가 높은 작품들이므로, 각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두 작품을 동일한 맥락으로 묶어서 연구한 성과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두 작품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상술한 분석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편이다.[4] 그러나 최근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비교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王莹, 〈欧阳修自传的史学价值与叙事策略〉, ≪中州学刊≫ 第10期, 2016"은 〈六一居士傳〉을 사학적 가치와 서술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五柳先生傳〉과의 비교를 진행하고 있다. 王莹에 따르면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차이는 시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5] 또한 해당 연구는 陶淵明의 작품이 魏晉時期의 폐해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

4) 두 작품을 다루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한 계통의 작품으로 묶어서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川合康三가 지은 ≪중국의 자전문학≫이다. 여기서는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이 '이러하고 싶은 나'라는 항목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저서에서는 陶淵明의 산문을 託傳의 대표 격으로 간주하고 이후 시대의 自傳들이 어떻게 이 작품을 수용하였는지 언급하며 연구가 진행된다. 自傳에 대한 연구의 경우, 託傳이 自傳의 하위 범주 측면에서 분석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는 託傳의 예시로 등장한다. 이 연구 방식은 주로 학위 논문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滕延秋, 〈汉魏六朝自传文研究〉, 山东大学 硕士学位論文, 2013."의 경우 〈五柳先生傳〉과 袁粲이 지은 〈妙德先生傳〉을 묶어서 "허구성 자전(虚拟性自传)"이라고 명명하였다. "何帆, 〈先唐自传文研究〉, 湖南师范大学 硕士学位論文, 2016."의 경우 1인칭으로 쓰이지 않은 자전의 예를 설명하며 〈五柳先生傳〉과 白居易의 〈酔吟先生傳〉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두 논문 모두 〈六一居士傳〉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고 문답형식을 사용하여 자전의 상투적 특징에서 탈피하고자 한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5) 王莹, 〈欧阳修自传的史学价值与叙事策略〉, ≪中州学刊≫ 第10期, 2016, 141页。

www.kci.go.kr

는 반면 歐陽脩의 작품은 등장인물의 심미관과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적 가치를 형상화하는 데에 집중한 글로 본다.[6] "窦金然, 〈谈'五柳先生'与'六一居士'的隐逸之趣〉, ≪文艺评论≫ 第17期, 2017"의 경우, 전자의 연구보다 본격적인 비교 분석을 진행한 선행 연구인데, 해당 논문은 '五柳先生'과 '六一居士'라는 명칭에 주안점을 두고 두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五柳先生傳〉·〈六一居士傳〉 모두 은거 생활을 나타낸 自傳으로 상정하여, 각 인물이 몸담았던 시대와 인물의 행적이 반영되어 託傳이 서로 다르게 형상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7]

본고는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를 비교 분석하여 두 작가의 생애나 魏晉·宋代 사회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託傳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이다. 다시 말해, 필자는 각 작품을 분석하여 託傳의 일반적 특징을 밝히는 것은 물론 두 작가의 託傳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을 규명할 것이다. 문장 到處에서 드러나는 작품의 특성을 근거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필요에 의해서는 陶淵明·歐陽脩의 다른 작품이나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을 평가한 다른 글들을 인용할 계획이다.[8]

본론에서는 먼저 〈五柳先生傳〉·〈六一居士傳〉 각 작품의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며, 託傳 장르로서 두 작품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託傳의 관점으로 두 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託傳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託傳의 기존 정의를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自傳과 託傳을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성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차이점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6) 같은 논문, 143쪽.

7) 窦金然, 〈谈'五柳先生'与'六一居士'的隐逸之趣〉, ≪文艺评论≫ 第17期, 2017, 276页。

8) 본고에 나오는 陶淵明의 글은 "車柱環, ≪韓譯 陶淵明全集≫, 서울大學校出版部, 2001."의 번역을, 그리고 歐陽脩의 글은 "이상화,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2≫, 傳統文化研究會, 2014."와 "이상화 외,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3≫, 傳統文化研究會, 2015."을 참조하였으나,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필자가 수정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www.kci.go.kr

위해 '형식'과 '내용 및 주제의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형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陶淵明과 歐陽脩가 자신의 傳記를 짓는 과정에서 문체를 운용하는 각자의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내용·주제의식으로 작품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 두 작품에서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는 '號를 짓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 볼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隱逸에 대해서 陶淵明과 歐陽脩 가지고 있는 사상적 차이가 각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Ⅱ.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유사점 : 託傳의 측면에서 바라본 두 작품

託傳의 성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五柳先生傳〉과 달리, 〈六一居士傳〉을 託傳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작품을 모두 託傳이라 칭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작품 속에서 찾아보고, 이어서 〈六一居士傳〉이 〈五柳先生傳〉을 계승하는 自傳이라는 사실을 규명할 것이다.

前述한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五柳先生傳〉은 이후 등장하는 託傳의 본보기가 되었다. 陶淵明 이전 시기에도 司馬遷의 〈太史公自序〉를 비롯하여 王充이 지은 ≪論衡≫의 〈自紀篇〉 등 스스로에 대한 저작을 짓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陶淵明은 자신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도 짐짓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서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 독특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五柳先生傳〉 서두에 나오는 구절이 가장 託傳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 선생은 어느 고장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또 성과 자도 자세하지 않다.[9]

9) "先生不知何許人也. 亦不詳其姓字"(〈五柳先生傳〉)

www.kci.go.kr

사실 이러한 도입부는 傳記體 散文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절이다. 傳記散文 도입부에서 작가는 저술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술 방식이 상투적인 구절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陶淵明은 자신에 대한 傳記를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身上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서술 방식을 택하여 인물을 모호하게 묘사하고 있다.[10] 게다가 〈五柳先生傳〉은 작가의 號를 가지고 自傳의 주인공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自傳에 비해 작가와 서술 대상 사이의 거리가 더욱 두드러진다.[11] 즉, 작품 속에서는 傳을 지은 사람과 五柳先生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언뜻 보기에 陶淵明의 自傳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스스로를 未詳의 인물로 묘사하는 방식은 이후에 등장하는 袁粲의 〈妙德先生傳〉, 白居易의 〈醉吟先生傳〉, 陸龜蒙의 〈甫里先生傳〉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이 작품들 역시 〈五柳先生傳〉처럼 내용상으로는 작가 자신의 일생이나 가치관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문장 안에서 작가와 서술 대상이 같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가가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號를 통해서 부른다는 서술

10) 전기에서 이렇게 인물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방식은 阮籍의 〈大人先生傳〉이 그 시초이다. 阮籍은 大人先生을 묘사하며 “大人先生은 늙은이이다. 성과 자를 알 수 없다.(大人先生蓋老人也, 不知姓字.)”라는 구절로 운을 뗀다. 그러나 大人先生을 阮籍이 상정한 이상적 인물로 볼 수는 있어도 大人先生이 곧 阮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陶淵明은 이렇게 ‘있을 법한’ 인물의 전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自傳의 영역에 도입한 인물이며, 이런 이유에서 〈大人先生傳〉이 아닌 〈五柳先生傳〉을 이후에 등장하는 託傳의 효시로 보는 것이다.

11) 自傳에서 나타나는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고 부르지 않고 別號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 중국의 自傳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다. 초기의 自傳 형태인 〈太史公自序〉는 스스로를 ‘太史公’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論衡·自紀篇≫에서 王充은 자기 자신을 ‘(王)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마치 自傳이 자신에 대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하는 일반 傳記散文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게다가 陶淵明은 ‘五柳先生’에 대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인물인 듯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自傳이 非自傳이 되는’ 양상은 託傳 體制의 특성상 다른 중국의 自傳보다 더욱 두드러진다.

www.kci.go.kr

방식만 두고 보면 〈六一居士傳〉이 〈五柳先生傳〉과 비슷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부의 상투적 구절'과 '화자—주인공의 동일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六一居士傳〉은 앞선 託傳과 다른 글처럼 보인다. 우선, 〈六一居士傳〉은 身元未詳 인물의 약력을 소개하는 도입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 六一居士가 처음 滁山으로 貶謫되어 醉翁이라고 自號하였는데, 늙어 쇠하고 병든 뒤에 潁水가로 물러나 쉬려고 했을 때에는 또 六一居士로 호를 고쳤다.[12]

이 구절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託傳들과 달리 自傳 속 주인공의 직접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화자와 自傳의 서술 대상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六一居士傳〉을 살펴볼 때 주목할 부분이다. 歐陽脩는 해당 작품의 마지막에 "熙寧 3년 9월 7일 六一居士는 스스로 傳을 짓노라."[13]라는 구절을 삽입하여 이 글이 六一居士라는 사람의 自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六一居士傳〉은 託傳이 아닌 다른 형태의 自傳이라고 분류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歐陽脩의 〈六一居士傳〉이 〈五柳先生傳〉과 같은 계통의 自傳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유는 〈六一居士傳〉 역시 〈五柳先生傳〉과 마찬가지로 작가와 작품 속 주체(화자, 주인공) 사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 내적인 정보를 통해 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전기가 六一居士의 自傳이라는 정보이다. 〈六一居士傳〉 이전에 등장한 〈五柳先生傳〉의 서술 형식을 따르는 自傳들은 해당 작품이 自傳이라는 사실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六

12) "六一居士, 初謫滁山, 自號醉翁, 旣老而衰且病, 將退休於潁水之上, 則又更號六一居士." (〈六一居士傳〉)

13) "熙寧三年九月七日, 六一居士自傳" (〈六一居士傳〉)

www.kci.go.kr

一居士傳〉은 託傳에서 화자와 주인 서술 방식을 통하여 自傳的인 요소를 부각한 작품인 것이다.

그렇지만 〈六一居士傳〉에서도 '작가—화자—주인공'의 동일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自傳에 속하는 글은 아니지만 설명을 돕기 위해 歐陽脩의 다른 글을 살펴보자.

> …… 하지만 뭇새들은 숲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은 알지언정 사람들의 즐거움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태수를 따라 유람 나온 즐거움은 알지언정 태수가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술이 취해서는 그들의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술에서 깨어나서는 글로써 그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는 곧 태수이라. 태수는 누구라 하나, 여릉 땅의 歐陽脩이다.[14]

인용한 구절은 〈醉翁亭記〉의 마지막 부분으로 〈六一居士傳〉와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歐陽脩가 쓴 글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태수는 누구라 하나, 여릉 땅의 歐陽脩이다."하는 부분은 현실에 존재하는 작가와 작품 속 화자——주인공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다.

작가와 작품 속 주체들의 동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물에 대한 상세한 약력을 기입한다든지, 더 직접적으로는 '나'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託傳은 이러한 서술 방식을 지양하는 글이다. 독자가 작품 이외의 정보를 동원해야 작가와 작품 속 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은 〈六一居士傳〉과 이전의 託傳 작품의 유사한 부분이다.

또한 〈六一居士傳〉은 託傳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다. 해당 작품은 〈五柳先生傳〉과 동일하게 '특정 대상에

14) "然而禽鳥知山林之樂, 而不知人之樂, 人知從太守遊而樂, 而不知太守之樂其樂也. 醉能同其樂, 醒能述以文者, 太守也. 太守謂誰, 廬陵歐陽修也." (〈醉翁亭記〉)

www.kci.go.kr

依託하여 작가의 심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歐陽脩는 託傳을 지으면서 號를 통해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인양 바라보며 서술하였다. 陶淵明이나 歐陽脩가 自傳을 지을 때 스스로를 문장 속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인물의 정보를 애매하게 전달하는 상투적 서두보다 더욱 근본적인 託傳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Ⅲ.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차이점

1. 형식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 두 작품을 감상할 때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차이는 글의 형식에서 나타난다. 겉보기에서 두 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각 작품이 다른 文體로 쓰였기 때문이다. 먼저 〈五柳先生傳〉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이 글은 '인물 묘사'와 '인물에 관련된 일화 소개'를 마친 뒤에 '贊'으로 마무리되는 형식을 취한다. 반면에 〈六一居士傳〉은 외형적으로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箴銘體의 특징, 혹은 객의 논리적 공세에 주장과 근거로 맞서는 論辨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陶淵明과 歐陽脩가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쓴 까닭은 각 인물의 인생사와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陶淵明은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산문뿐만 아니라 시가 창작 방면에서도 소탈한 풍격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정평이 난 작가이다. 그는 이른 나이부터 전원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전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五柳先生傳〉에서 호기롭게 드러내고 있다. 〈六一居士傳〉과 비교하였을 때 〈五柳先生傳〉 비교적 함축적인 어휘를 사용하였고 典故를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시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五柳先生傳〉에서 운문과 유사한 정취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은 특히

www.kci.go.kr

마지막에 나타나는 "贊曰" 이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贊하여 말한다. 黔婁의 말에 "빈천을 걱정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五柳先生과 같은 무리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술을 즐기고 시를 지어 그 뜻을 즐기니, 無懷氏의 백성인가? 葛天氏의 백성인가?[15]

陶淵明은 이 부분에서 대구를 적극 활용하여 글을 읽는 데에 있어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歐陽脩는 문장을 지을 때 구태의연함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상술한 바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인물의 이름이나 출생지를 소개하고, 해당 인물의 약력을 밝히는 傳記體 산문의 관습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六一居士傳〉을 지었다. 또한 歐陽脩는 인물묘사 측면에 있어서 객관성과 사실을 강조하였다.[16] 歐陽脩의 다른 글인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에는 그의 작문 철학이 잘 드러난다.

> 듣건대 傳에 이르기를 '말에 文章이 없으면 비록 행해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군자가 배우는 바는 말로써 일을 기록하고 문장으로 말을 修飾하니, 일은 신뢰를 받고 말은 문장으로 돼야 비로소 후세에 드러내어 보일 수 있다.[17]

歐陽脩에게 "글이 어떻게 '후세에 드러내어 보일'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은 自傳 창작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으리라 짐작된다. 自傳은 일반 傳記體 산문과는 다르게 글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기 쉬운 글이다. 그래서 歐陽脩는 〈六一居士傳〉에서

15) "贊曰, 黔婁有言, 不戚戚於貧賤, 不汲汲於富貴. 其言茲若人之儔乎. 酣觴賦詩, 以樂其志. 無懷氏之民歟, 葛天氏之民歟." (〈五柳先生傳〉)

16) 吳孟復(김철범 역), ≪文章 革新≫, 글항아리, 2014, 171쪽.

17) "某聞傳曰, 言之無文, 行而不遠. 君子之所學也, 言以載事, 而文以飾言, 事信言文, 乃能表見於後世."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

www.kci.go.kr

자신의 인생철학에 대한 직접적 설명을 하지 않고 논박의 대화 구성을 통하여 서술하였으며, 자신의 號에 자아 형상을 依託하는 우회적인 서술 전략을 사용하였다.

앞서 〈六一居士傳〉이 論辯하는 글의 풍격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歐陽脩가 이러한 특성을 글에 담은 것은 그가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歐陽脩가 〈秋聲賦〉와 같은 작품을 지어 중국 문학사에서 현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歐陽脩의 작품세계는 예술성만으로 회자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다채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朋黨論〉이나 〈與高司諫書〉처럼 의론성이 짙은 글에서도 두각을 내던 모습 등은 歐陽脩의 글을 논할 때 빼놓지 말고 언급되어야 할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이 동일한 託傳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형식을 취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작가들이 가진 각자의 개성을 따라서 문학 작품을 창작해 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2. 내용 및 주제의식에서 나타나는 차이

1) 내용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 '命名'에 대한 관점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은 號를 제목으로 삼고 있으며, '五柳先生'과 '六一居士'라는 이름은 陶淵明과 歐陽脩가 자아를 依託하는 대상이다. 號가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인 만큼 두 작품 모두 號를 붙이게 된 이유가 작품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주택가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호로 삼은 것이다.[18]

18) "宅邊有五柳樹, 因以爲號焉." (〈五柳先生傳〉)

www.kci.go.kr

> 客이 묻기를 "'六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거사가 말하였다. "우리 집에 藏書가 일만 권이요, 삼대 이래의 金石文 자료를 集錄한 것이 일천 권이요, 거문고가 한 벌 있으며 바둑판이 하나 있고 항상 술 한 병을 두고 있다오." 객이 말하기를 "이는 '五一'(다섯 가지가 하나씩 있는 것)인데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하니, 거사가 말하였다. "이 늙은이 한 사람이 다섯 가지 물건 사이에서 늙으니 이 어찌 '六一'이 되지 않겠소?"[19]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陶淵明이 '五柳先生'이라는 號를 짓게 된 것과 歐陽脩가 '六一居士'라고 號를 짓게 된 경위에는 다소간 차이가 존재한다. 五柳先生이라는 自號는 집 주변에 있던 自然物로부터 유래하였으니 우연적인 성격이 다분하다. 반면에 六一居士라는 명칭은 歐陽脩가 가깝게 여기는 물건 다섯 가지와 연관된 이름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歐陽脩의 소유하에 있는 품목이며 그 물건을 향유하는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歐陽脩의 命名 방식은 陶淵明의 방식과 달리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필연적"[20]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命名 방식의 차이는 두 託傳에 드러나는 運命觀으로 확장하여 설명할 수 있다. 陶淵明이 〈五柳先生傳〉에서 보여주는 이름 짓기 방식은 이름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통념을 거부하는 것이다.[21] 五柳先生이라는 명칭은 사람과 자연물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陶淵明의 命名 방식은 이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있다는 凡人의 생각으로부터 탈피한 것이다. 이러한 경지는 陶淵明의 다른 문학 작품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道가 상실된 지 천년이 되려는데,

19) "客有問曰, 六一何謂也. 居士曰, 吾家藏書一萬卷. 集錄三代以來金石遺文一千卷. 有琴一張, 有碁一局, 而常置酒一壺. 客曰, 是爲五一爾, 柰何. 居士曰, 以吾一翁, 老於此五物之間, 是豈不爲六一乎."(〈六一居士傳〉)

20) 川合康三, 앞의 책, 175쪽.

21) 川合康三는 본인의 저서(같은 책, p.96)에서 〈五柳先生傳〉의 우연적 命名 방식과 〈六一居士傳〉의 命名 방식을 대조하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www.kci.go.kr

사람마다 자기의 眞情을 아끼는구나.
술이 있어도 마시려 하지 않고,
다만 세속의 명성을 돌아볼 뿐.
이내 몸 귀하게 해주는 것도
어찌 살아 있는 동안뿐이지 않겠는가.
이 한평생은 또 얼마나 되는가?
갑자기 번쩍이는 번갯불 같은데.
빨리 지나가는 백년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는가?22)

…… 한평생 살다 죽어 무덤으로 돌아가면,
이런 공허한 이름으로 일컬어질 텐데.23)

인용한 작품들에는 '살아 있는 동안뿐인'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陶淵明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五柳先生傳〉에는 이름을 짓는 과정이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름의 의미를 窮究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이름 역시 명예·명성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름에 자신의 신념이나 좌우명을 담는 것은 陶淵明에게 있어 이름에 자아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陶淵明의 풍모가 자칫 허무주의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隱逸之士로서 陶淵明의 풍모를 곧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로 비약하는 것이다. 그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진취적인 기풍의 문인이었다. 陶淵明의 이러한 특징이 〈五柳先生傳〉에서 命名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五柳라는 명칭은 인간과 주변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관계에 따른 이름의 가변적 성격'을 논의한 바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해보자. 〈五柳先生傳〉의 방식처럼 命名을 하였다면, 유연하게 상황에

22) "道喪向千載, 人人惜其情. 有酒不肯飮, 但顧世間名. 所以貴我身, 豈不在一生. 一生復能幾, 倏如流電驚. 鼎鼎百年內, 持此欲何成." (〈飮酒〉 3首)
23) "……百年歸丘壟, 用此空名道." (〈雜詩〉 4首)

www.kci.go.kr

대처하며 바뀐 주변의 사물에 맞게 자신의 號를 바꿀 수 있다. 〈五柳先生傳〉과 같은 이름 짓기는 인물을 특정한 가치에 귀속시키지 않는다. 陶淵明의 다른 작품 〈歸去來兮辭〉에서 화자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 지난날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일은 바른 길을 쫓을 수 있음을 알았노라. 참으로 길을 잘못 들었으나, 아직 그리 멀어진 것은 아니니 지금부터는 옳고 어제까지는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네.[24]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 속의 태도들로 미루어 보아, 陶淵明은 運命이나 고정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생관이 〈五柳先生傳〉의 주제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와 달리 〈六一居士傳〉은 號에 관련된 문답을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될 만큼 命名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六一居士傳〉에서 등장하는 命名과 관련된 물건 품목 가운데에는 藏書, ≪集古錄≫처럼 歐陽脩를 상징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號를 구성하는 물건 가운데 자신의 업적을 대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당 인물에게 그 명칭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이와 같은 命名 방식은 歐陽脩가 陶淵明과 달리 순응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六一居士傳〉의 다음 부분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 내 참으로 이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또한 굳이 피할 것도 없음을 알고 있소.[25]

이 구절은 六一居士가 客이 언급한 莊子의 고사[26]에 동의하며 대답한

24)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實迷塗基未遠, 覺今是而昨非." (〈歸去來兮辭〉)
25) "吾固知名之不可逃, 然亦知夫不必逃也." (〈六一居士傳〉)
26) ≪莊子≫ 〈漁父〉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기 발자국을 싫어하여 그것을 떨쳐내려고 달려 도망친 자가 있었는데, 발을 들어 올리는

www.kci.go.kr

것이다. 六一居士는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號를 지어서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은 '六一'이라는 명칭이 자신에 의하여 지었다는 것과 일견 모순되는 듯 보인다. 六一居士라는 이름을 지은 것에는 歐陽脩의 志趣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俗世에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시도 역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구절에서 六一居士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과거에 자신이 걸어온 行蹟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과거와 관련하여 불가피성을 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歐陽脩는 새롭게 스스로를 꾸며낸들 그것은 자기만족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서 六一居士는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피하는 것 또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압도되어 그것을 외면해버릴 수도 있는 일인데 歐陽脩는 그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를 自傳 속에 형상화하였다. 陶淵明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한다고 해서 그를 단순한 비관론자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歐陽脩가 순응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해석이 그를 현실에 무력하게 타협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歐陽脩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모두 행한 이후의 영역에 대해서는 運命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儒家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27] 歐陽脩는 宋代 士大夫의 대표주자로서 儒學者 중 한 사람이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발자국도 더욱 많아졌고 달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림자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달리기가 아직 더디다고 생각해서, 쉬지 않고 질주하여 마침내는 힘이 다하여 죽고 말았다. 그늘에서 그림자를 쉬게 하고 조용히 멈추어 발자국을 쉬게 할 줄 몰랐으니 어리석음이 또한 심하다."라고 하였다. (해당 부분은 "이상화 외,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3≫, 傳統文化硏究會, 2015, 148쪽."에서 재인용하였음.)

27) 예컨대 ≪易傳·說卦傳≫ 1장에서 등장하는 구절인 "인륜의 이치를 궁구하고, 성을 극진히 하여 천명에 이른다.(窮理盡性以至於命)", 또는 ≪孟子·離婁上≫ 12장에서 등장하는 "……그러므로 성실히 함은 하늘의 도요, 성실히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是故, 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와 같은 구절 등이 이와 같은 儒家的 사고를 잘 보여준다. 儒學者들은 자신의 본

www.kci.go.kr

고 볼 수 있다. 前述한 〈六一居士傳〉의 인용구 이후 구절에서 六一居士 자신의 號를 두고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표명한 것이다.(聊以志吾之樂爾)"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이 정치가로서 이룩한 功過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여생을 즐기겠다는 歐陽脩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을 命名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본다면 서로 對蹠點에 있는 작품이라도 해도 될 만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陶淵明과 歐陽脩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다. 〈五柳先生傳〉에서 陶淵明은 隱逸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六一居士傳〉에서 歐陽脩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견지한 채로 여생을 즐기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2) 주제의식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 '隱逸'에 대한 관점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의 유사성을 논할 때, 두 작품 모두 依託 대상을 작품 속에 등장시켜 작가의 自傳的 서사를 전개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陶淵明은 자아의 모습을 自傳에서 숨기려고 하였고, 歐陽脩는 "六一居士는 스스로 전을 짓노라.(六一居士自傳.)"라는 이야기를 삽입하여 해당 작품이 자기 서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작품의 상반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五柳先生傳〉 계통의 託傳과 歐陽脩의 작품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먼저 陶淵明이 〈五柳先生傳〉에서 작품 속 자신의 모습을 모호하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이는 東晉 시기의 풍조, 더 나아가 魏晉南北朝 시대의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된다. 당시에는 잦은 왕조 교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지식인들이 다루는 사상이나 문장은 현실을 직접 논하기보다는 思辨的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儒教的 가치가 漢 왕조의 몰락과 함께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儒家에서 강조하던 집단을 위한 논리보다는 개인

분을 다하는 것에 집중할 뿐 그 이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www.kci.go.kr

에 천착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다.

개인을 중시하는 풍조와 자아 형상을 숨기는 自傳은 충돌되는 개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魏晉南北朝 시기에서 개인이 중시되는 것과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五柳先生傳〉에서 이러한 사회상은 현실로부터 멀어지려 하며 세속적 가치와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五柳先生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깊이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항상 깨닫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며 밥 먹는 것조차 잊었다. …… 항상 글을 짓고 스스로 즐기는데 자기 뜻을 나타낸다. 득실을 생각하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인생을 끝낸다.[28]

인용한 내용은 五柳先生이 發憤忘食하는 모습이나 가난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구절 등이 나타나는 작품의 다른 부분과 연관 지었을 때 인물의 청렴한 성격을 드러내는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 풍조를 고려해볼 때 이 구절은 단순히 淸貧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현실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陶淵明이 몸담고 있던 시대가 희망적이지 못했기에, 관직이나 사회 개혁에 뜻을 품고 학문을 연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託傳이 등장한 것이다. 〈五柳先生傳〉에서 '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序言 부분의 모티프가 阮籍의 〈大人先生傳〉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阮籍 역시 〈大人先生傳〉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 풍조에 따라서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했으며 그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우회적 서술이 사용된 것이다. 陶淵明이 자신의 이야기를

28) "好讀書, 不求甚解. 每有會意便欣然忘食. …… 常著文章自娛, 頗示其志. 忘懷得失, 以此自終." (〈五柳先生傳〉)

www.kci.go.kr

할 때 阮籍의 〈大人先生傳〉처럼 서술한 까닭은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사상적 이상을 드러내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비해서 歐陽脩가 살았던 宋代는 陶淵明이 살았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사회가 펼쳐진다. 趙匡胤에 의하여 시작된 宋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시행을 바탕으로 사회적 생산과 민중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였다.[29] 宋은 唐의 문화적 자본을 계승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였기 때문에 이후 南宋 시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부족할 것이 없던 국가였다. 또한 魏晉南北朝 시대에 仁義를 논하는 것이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던 반면에 宋代에는 士大夫와 문인 계층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六一居士傳〉에서 맨 마지막에 지은이를 명시하는 서술 역시 歐陽脩가 살던 배경에 기반을 두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宋代에는 더 이상 자신이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으며 지식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歐陽脩가 살고 있던 시대는 陶淵明의 시기와 다르게 자신이 공부한 것을 국가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실제로 歐陽脩는 당시 蘇軾, 王安石 등의 유능한 문인들을 조정에 천거한 인물이었으며, 權知貢擧로서 송나라의 과거를 관장하며 古文을 시대정신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했던 관리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업적을 남기고 인생 말년에 정치적으로 은퇴를 하였기에 자신이 쌓아온 업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부심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의 약력과 〈六一居士傳〉을 견주어보면 스스로의 정치적 업적을 가지고 "끝내 일컬을만한 것이 없다.(訖無稱焉)"고 이야기 하는 것은 겸손으로 읽히기까지 한다.

〈五柳先生傳〉에서는 자아 형상을 숨기고자 하고 〈六一居士傳〉에서는 자아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니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隱逸의 개념도 자연스레 차이가 존재한다. 〈五柳先生傳〉에 드러나는 중심 주제가 隱逸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볼 수 있지만 〈六一居士傳〉에서 나타나는 은퇴 이후 晩年을 즐기는 모습은 隱逸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각 작품의 저

29) 李景華 외(이종한 외 역), ≪中國散文簡史≫,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261쪽.

www.kci.go.kr

술시기를 살펴보자. 陶淵明은 田園으로 歸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五柳先生傳〉을 저술한 것으로 추정[30]되는 데 반하여, 歐陽脩의 〈六一居士傳〉은 조정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고 나온 글이다. 隱士로서 歐陽脩의 모습을 들여다보려면 아래의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 사십이면 아직 늙은 나이가 아니니,
> 취옹은 우연히도 취옹정에 붙이는 시를 짓노라.
> 취한 가운데는 만물을 잊어버리니,
> 어찌 다시 나의 나이를 기억하리오.[31]

〈六一居士傳〉의 서두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는 이전에 '醉翁'이라는 自號를 사용한 바 있다. 歐陽脩는 당시에 貶謫을 겪고 있었기에 해당 작품에는 세상에서 등 돌리고자 하는 태도를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취하여 현실을 잊고자 하는 모습도 〈六一居士傳〉에 나타나는 인물 형상과 사뭇 다르다. 물론 〈六一居士傳〉에서 歐陽脩는 여러 번 벼슬을 그만두고자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32] 이러한 모습은 歐陽脩가 관직과 세상에 대

30) 널리 알려진 것처럼 陶淵明이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은 40세 정도로 본다면, 〈五柳先生傳〉은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五柳先生傳〉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袁行霈의 주장에 근거하여 陶淵明의 託傳 저술 시기를 추측하였다. "문장의 意趣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세련되어 있다. 陶淵明의 생활 경험과 결합해 보건데, 응당 말년의 작품이다. 문장에서 '본성은 술을 좋아하나 집이 가난하여 항상 얻지는 못하였다. 친구는 그가 이와 같은 처지를 알고 간혹 술상을 차려 그를 부르곤 하였다. 술을 마시면 늘 다 마셔버려 반드시 취하였으며, 취한 후에는 물러나 가고 머무름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였다. 陶淵明은 乙卯(415)년 전후 벗과 교류를 많이 하였는데, 그의 狷介한 성격이 더욱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다. 잠정적으로 을묘년에 두었다.(袁行霈(박종혁 역), ≪陶淵明 연구≫, 학고방, 2017, 483쪽.)"

31) "四十未爲老, 醉翁偶題篇. 醉中遺萬物, 豈復記吾年." (〈題滁州醉翁亭詩〉)

32) 심지어 歐陽脩는 정계에서 물러나 潁州로 돌아갈 때에도 太子小師와 觀文殿學士라는 직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www.kci.go.kr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양면성[33]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가 隱士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隱逸之士가 되는 것은 시대의 영향뿐만 아니라 인물이 처해있는 개인적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陶淵明은 歐陽脩보다 더 쉽게 隱士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처지였다. 陶淵明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깊이 얽힌 인물도 아니었으며 정치에서 뚜렷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歐陽脩의 정계 은퇴가 3년 동안의 提請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陶淵明은 정치 일선에서 쉽게 물러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六一居士傳〉에서 隱逸하고자 하는 意趣를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五柳先生傳〉과 같은 隱逸 의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Ⅳ. 나가며

이상의 연구에서 陶淵明의 〈五柳先生傳〉과 歐陽脩의 〈六一居士傳〉 비교를 통하여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의 유사점을 탐구하는 데에 있어 쟁점은 '〈六一居士傳〉 역시 託傳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였다. 작품을 검토한 결과 〈六一居士傳〉 역시 특정 대상에 작가 자신을 의탁하는 서술 방식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五柳先生傳〉과의 유사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각 託傳의 차이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내용과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내용과 관련한 차이점을 탐구할 때 두 작품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命名이 어떤 방식으로 각

33) 馬華와 陳正宏이 저술한 ≪中國隱士文化≫에서는 孔子를 지식인의 전형으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의 사상에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동참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그의 정치적 이상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속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상이나 정서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馬華·陳正宏(강경범·천현경 역), ≪中國隱士文化≫, 동문선, 1997, 27쪽.)

www.kci.go.kr

작품에서 나타나는지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五柳先生傳〉에서 나타나는 命名은 자신의 運命을 개척하고자 하는 陶淵明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며 〈六一居士傳〉에서 나타나는 命名이 運命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歐陽脩의 사고가 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五柳先生傳〉과 〈六一居士傳〉에 드러나는 자아 형상이 각각 '숨김'과 '드러냄'으로 양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교를 진행하였다. 각 작품이 자아 형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의 여부는 隱逸이라는 주제의식으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五柳先生傳〉에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은 魏晉南北朝 때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며 〈六一居士傳〉의 경우 그 자아 형상이 宋代 士大夫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託傳에 나타나는 자아를 탐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陶淵明과 歐陽脩의 경우에도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본고에서 다 담아내지 못한 작가들의 交遊 관계나 영향을 받은 사상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요소들도 작가의 인생관이나 작품 서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自傳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남겨진 또 다른 과제는 특정 작가에게만 편중되고 있는 自傳 연구 현황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중국의 自傳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연구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가 그들이 다루는 작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논의가 발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분야에서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것은 한국 고전 문학 분야에 있어서 自傳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국과 한국의 自傳 문학에 대해서 비교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연구 주제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www.kci.go.kr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각각의 自傳 문학과 산문 문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a, Juhwan. *The Complete Works Of Tao Yuanming(Translated Into Korea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1.
2. Chen Bixiang. *Gu Dai San Wen Wen Ti Gai Lun*. Taibei: The Liberal Arts Press, 1987.
3. Dou Jinran. "Discussion About A Pursuit For A Recluse Of 'Wu Liu Xian Sheng' And 'Liu Yi Ju Shi'". *Literary Critique* 17, (2017).
4. Gawai Kozo(Shim Kyeongho Trans.). *The Autography In China*, Seoul: Somyong Publishing, 2002.
5. Jo, Suhak. "A Study on a Special Ancient Chinese Form of Biography, 'Tak-Joen'".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4, (1983).
6. Kang, Soo-jin. "The Investigation into the Ouyang Xiu's Acceptance Pattern of The Biography of the Six to One Layman - Based on Gi(記) of Dang(堂), Heon(軒) and Jae(齋)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38, (2017).
7. Lee, Juhae. "A Trait Of Autobiographical Writing I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Focused On Category)".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44, (2013).
8. Lee Sanghwa, *Tang Song Ba Da Jia Wen Chao - Ou Yang Xiu(Vol. 2)*, Seoul: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Society. (2014).
9. Lee Sanghwa, *Tang Song Ba Da Jia Wen Chao - Ou Yang Xiu(Vol. 3)*, Seoul: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Society. (2015).
10. Li Jinghua(Lee Jonghan Trans.). *Zhong Guo Gu Dai San Wen Jiu Jiang*

www.kci.go.kr

(Nine Lectures On Chinese Classical Propose). Daegu: Keimyung University Press, 2007.

11. Ma Hua & Chen Zehnghong(Kang, Kyeongbeom & Cheon Hyeon kyeong Trans.). *Yin Shi Sheng Huo Tan Mi(Exploring The Mystery Of Chinese Recluse)*. Seoul: Dongmunseon, 1997.
12. Philippe Lejeune(Youn Jeen Trans.). *(Le) Pacte autobiographique*. Seoul: Moonji Publishing, 1998.
13. Wang Ying. "The Study on the Historical Value and Narrative Strategy of Ouyang Xiu's Autobiography". *Academic Journal of Zhongzhou* 10. (2016).
14. Wu Mengfu(Kim Cheolbeom Trans.). *Tang-Song Gu Wen Ba Jia Gai Shu(A Survey of the Eight Prose Masters of the Tang and Song)*. Paju: Geulhangari, 2014.
15. Youn Jeen. "Fiction de la vérité ou vérité de la fiction - Problèmes de l'écriture autobiographique". *Societe Coreenne d' Enseignement de Langue et Litterature Francaises* 7, (1999).
16. Yuan Xingpei(Park Junghyuk Trans). *The Studies On Tao Yuanming*. Goyang: Hakkobang, 2017.

<참고문헌>

1. 車柱環, ≪韓譯 陶淵明全集≫, 서울大學校出版部, 2001.
2.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 文史哲出版社, 1987.
3. 窦金然, 〈谈'五柳先生'与'六一居士'的隐逸之趣〉, ≪文艺评论≫ 第17期, 2017.
4. 川合康三(심경호 역), ≪中國의 自傳文學≫, 소명출판, 2002.
5. 曺壽鶴, 〈託傳小考〉, ≪人文硏究≫ 제4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www.kci.go.kr

1983.
6. 강수진, 〈歐陽脩의 六一居士傳의 수용 양상에 대한 小考 - 조선 후기에 창작된 堂, 軒, 齋에 대한 記를 중심으로〉, ≪韓國古典硏究≫ 제38권, 韓國古典硏究學會, 2017.
7. 이주해, 〈중국 고전문학에서 자전적 글쓰기의 특징 - 類型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제44권, 2013.
8. 이상화 외,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2≫, 傳統文化硏究會, 2014.
9. 이상화 외, ≪譯註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 3≫, 傳統文化硏究會, 2015.
10. 이경화 외(이종한 외 역), ≪中國散文簡史≫,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7.
11. 馬華·陳正宏(강경범·천현경 역), ≪中國隱士文化≫, 동문선, 1997.
12. 필립 르죈(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13. 王莹, 〈欧阳修自传的史学价值与叙事策略〉, ≪中州学刊≫ 第10期, 2016.
14. 吳孟復(김철범 역), ≪文章 革新≫, 글항아리, 2014.
15. 윤진, 〈진실의 허구 혹은 허구의 진실—자서전 글쓰기의 문제들〉, ≪프랑스어문교육≫ 제7집, 1999.
16. 袁行霈(박종혁 역), ≪陶淵明 연구≫, 학고방, 2017.

<Abstract>

Above of Chinese classical proses, 'Zizhuan(Ancient Chinese autobiography)' has different traits to the autography genre of Western literature. Among the many styles of Zizhuan, 'Tuozhuan' is the most remarkable subgenre. Tuozhuan's author uses him/herself as a raw material for narrative, but the author liken him/herself to another personality in their works.

This article develops a comparison between Tao Yuan Ming's *Wuliuxiansheng—zhuan* and Ou Yang Xiu's *Liuyijushi—zhuan*, in order to determine these distinct features. *Wuliuxiansheng—zhuan* was the

www.kci.go.kr

beginning of Tuozhuan genre and *Liuyijushi—zhuan* changed the rules of its genre. The characters of both works are commonly linkened to his pen name(also known as 'nom de plume').

However there is a different between the two works on the types of 'nom de plume' and the shape of ego. The naming method in *Wuliuxiansheng—zhuan* reflects the spirit of the author who wants to develop his destiny, while the naming method in *Liuyijushi—zhuan* reflects the author's thinking to accept his reality. Also analyzing the ego—shape of *Wuliuxiansheng—zhuan* and *Liuyijushi—zhuan*, the former represents the ego of seclusion, the latter symbolizes the ego of express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it appears that *Wuliuxiansheng—zhuan* is influenced by the disordered social situation of Wei-Jin dynasties. And the author's shape of *Liuyijushi—zhuan* was affected by the scholar—gentry class of Song dynasty. The two Authors reflecr their speciality of writing and a social circumstance as theirs Tuozhuan.

Key Words : 中國古代散文(Chinese classical prose), 自傳(Acient Chinese autobiography), 託傳(Tuozhuan), 陶淵明(Tao Yuan-Ming), 歐陽脩(Ou-Yang Xiu), 五柳先生傳(*Wuliuxiansheng—zhuan*), 六一居士傳(*Liuyijushi—zhuan*)

www.kci.go.kr